

정미의병기 전북지역 의병장 이성화의 항일투쟁 연구

이용철*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거의와 항일투쟁 | 참고문헌 |
| 3. 의진 운영과 참여자 |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미의병기 의병장 이성화의 항일투쟁을 살펴본 것이다. 이성화는 전북 고부군 출신으로, 乙巳勒約과 광무황제의 강제 퇴위 등으로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자 의병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 이후 1909년 10월까지 투쟁의 근간을 마련코자 군수품 모집 등에 주력했으며, 지속적으로 일본 군경과의 교전을 수행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때때로 신보현 등 다른 의병장과의 연대 속에서 일제에 맞서기도 하였다.

활동 지역은 전북 고부를 중심으로 부안, 정읍, 순창, 태인, 금구, 김제, 만경, 담양 등 전북 서부와 일부 전남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이성화 자체가 고부 출신이고, 그 부하들도 고부를 중심으로 전북 서부지역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것과 관계가 깊다.

단, 이성화는 동시기 활약했던 의병장 김동신이나 문태수 등에 비해 일본 군경과의 전투에서 좀 더 고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그의 의진이 거의 농민으로만 구성된 것과 관련이 있고, 또한 무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주로 평지를 중심으로 활약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충남도청 주무관, E-mail: lyc223513@gmail.com

이성화는 호남의병의 일원으로서 전라북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맹활약하였고, 끝내 체포되거나 항복하지 않고 최후를 맞이한 의병장이었다. 하지만 이성화에 대한 개별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그의 활동을 규명하는 한편, 지금까지 전남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전북지역 의병장들의 활약상을 발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의병, 이성화, 독립운동, 정미의병, 호남

1. 머리말

1876년 강화도조약 이래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해가던 일제는 1910년 庚戌國恥를 기점으로 한국을 강제 병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은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였는데, 그 대표적 활약이 ‘義兵’의 형태로 촉발되었다. 의병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일어나 외적에 맞선 ‘民軍’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정미의병, 또는 후기의병으로 불리는 1907년 이래의 의병은 지역적으로도 가장 광범위했고, 또 평민의병장이 다수 참여할 정도로 그 저변이 넓었다는 점에서 한말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의병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1980년대 들어 본격화 되었다.¹⁾ 하지만 정미의병기에 활약했던 지역 의병장과 의진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며,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이성화 의병장과 그의 의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성화는 전북 고부 출신으로 1908년 7월 이래 활동을 시작하여 1909년 10월까지 전라북도의 서부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또 다른 의병장이었던 전해산·신보현 등과의 연대를 통해 일제에 맞섰던 인물이다.

1) 한말 호남의병 연구의 대표적 연구자는 洪英基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87년 호남의병장 安圭洪에 대한 연구(1987, 『安圭洪 義兵의 組織과 그 活動 -舊韓末 湖南義兵의 一例』, 『韓國學報』49, 一志社)를 시작으로 여러 개별 의병장 연구와 함께 정미의병기 호남의병의 전략과 거의 성격(1993, 『舊韓末 湖南義兵의 倡義 性格』, 『湖南文化研究』22,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등 다방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기타 한말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사는 다음의 연구(2016, 『한말 호남의병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64, 호남사학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 이성화에 대해 지역 신문에서는 이미 2000년에 그 활약을 조명하고 관련 사적지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 이후 25년가량이 지난 현시점까지 한 편의 개별연구조차 나온 바가 없다.²⁾

이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폭도에 관한 편찬』³⁾ 등 의병 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정미의병기 전북지역 의병장 이성화의 항일투쟁과 의진 운영 전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행적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호남의병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거의와 항일투쟁

1) 신상과 거의 동기

이성화의 의병투쟁 활약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그 개인의 신상에 대해 살펴보자. 이성화 개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물론 德水李氏 족보에 이성화가 등재되어 있긴 하나 족보상 본명이 ‘李敏孝’이고, 號가 ‘李成華’인 관계로 이 인물이 실제 의병장 李成化인지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이성화가 활동할 당시 생산된 자료에서 그의 본명이 ‘李敏孝’이고, 號가 ‘李成華’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화의 신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족보보다 먼저 생산된, 활동 당시 일제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제 보고 자료에서 이성화의 신상, 즉 신분과 출신지, 또는 연령을 알려주는 내용은 네 건 정도 확인된다. 일단 성명의 경우, ‘李聖化’⁴⁾로 표기된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대다수 자료에서 등장하는 이름은 ‘李成化’였고, ‘李成

2) 『전북도민일보』, 2000년 2월 10일, 「이성화의병장 재조명 나서야」.

3) 『폭도에 관한 편찬』은 1907~1910년 간 일제가 의병을 탄압하면서 작성하여 남긴 자료이다. 총 89권으로 1966년 대한민국 총무처가 정부기록문서인 『警務關係書類』를 MF로 축소 촬영할 당시 국가기록원에 보존하였고, 이후 국사편찬위원회가 번역하여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의병편으로 발간하였다. 현재는 국가기록원과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을 볼 수 있다. 의병 탄압 주체인 일제의 시각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병의 활동을 폄하하는 시각이 투영되어 있고, 의진 내부의 사정 등을 다루지 못한 가운데 피상적인 추정과 소문 등에 근거한 기록도 많아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스스로의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대다수 의병들의 동향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국사편찬위원회, 1999, 『南韓暴徒大討伐實施報告』, 『統監府文書』 9, 396-400쪽.

華'는 따로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연령과 관련해서는 1909년 2월 27일자 全羅北道 觀察使 李斗璜의 보고에 이성화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의 나이가 27세임을 적시하고 있고,⁵⁾ 1911년 발간된 『新韓民報』 기사에 그의 나이가 30세로 나오고 있으므로,⁶⁾ 이를 통해 보면 1882년 전후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주소 및 신분과 관련해서는 세 건의 자료가 확인되는데,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미세하게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상호 비교가 필요하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1>에서 나타나듯, 이성화는 일제 자료에서 ‘儒生’으로 등장하는데, 하나의 자료에서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別號’가 ‘參奉’이라는 내용까지 확인된다. 이 세 자료가 이성화의 신분을 말해주는, 현재로서 확인되는 모든 자료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가 단순 농민 출신은 아니었을 공산이 크다.

<표 1> 일제 보고 자료 속 이성화

번호	신분	출신지	출처
1	參奉	古阜郡 雨日面	松井茂(警務局長), 『高秘發第18號:暴徒首魁에 관한 調查報告』,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1909.
2	儒生	古阜郡 新基	韓國駐劄憲兵隊本部, 『憲機第535號:暴徒首魁調書』, 『隆熙 3年 1月中 暴徒에 관한 編冊 諸統計表』, 1909.
3	儒生	古阜郡 雨日面 加里	松井茂(警務局長), 『高秘發第112號:暴徒首魁調查表』, 『隆熙 4年 暴徒에 관한 編冊 各道로 區分하기 어려운 分』, 1910.

출신지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자료 모두 그가 전라북도 고부군 출신임을 말하고 있으며, 그중 두 자료가 雨日面까지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나머지 하나는 ‘古阜郡 新基’를 지목하고 있는데, 참고로 ‘新基’는 ‘南部面’의 ‘里’였다.⁷⁾ 결국 이성화의 출신지는 古阜郡까지는 동일하고, 자료에 따라 ‘雨日面’, ‘雨日面 加里’, ‘南部面 新基里’ 등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교차검증되는 곳은 ‘雨日面 加里’이다. 이후 이성화의 순국과 관련하여 『新韓民報』 기사가 나오는데, 이성화가 ‘고부군 우일면 가정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⁸⁾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이성화는 유생 또는, 유학적 소양

5)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223-2號:暴徒討伐ノ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6) 『新韓民報』, 1911년 9월 27일, 『의병장의 병스』.

7)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313쪽.

8) 『新韓民報』, 1911년 9월 27일, 『의병장의 병스』.

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출신지·거주지는 전북 古阜郡으로 그 중에서도 ‘우일면 가정리’일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다.

이성화는 1908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1년 넘게 전북 古阜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활약상은 이 시기 전형적인 지역의병장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어떤 계기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는 아직까지 미궁에 쌓여 있었다. 이는 자료 부족 때문으로, 사실 이 시기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들의 거의 동기는 대개 그들 스스로가 작성한 일기류나 또는 활동 당시 공포한 檄文, 또는 민간에 보낸 警告文, 그것도 아니면 체포 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신문조서나 判決文 등에 남아 있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주인공인 이성화는 공공토틀게도 관계 자료가 없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 그가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게 이성화의 정체성 인식이다. 일제는 의병을 일개 ‘盜賊’으로 취급해왔고, 실제 보고 자료에서도 공공연히 ‘賊徒’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성화는 활동 과정에서 스스로를 나라를 위해 일어난 ‘義兵’으로 인식한 가운데 이를 대외적으로 계속 표방하였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는 1909년 1월 19일부터 2월 3일 사이 전북 古阜·井邑·泰仁·金堤 등지를 權金岩 등 부하 약 40명과 함께 활동할 때 자신들을 ‘의병’이라 칭하고 있었고,⁹⁾ 1909년 2월 20일부터 3월 1일 사이 전북 古阜·井邑郡에서 許在弘 등 부하 15명과 활동할 때도 ‘의병’을 자임하였다.¹⁰⁾ 그리고 이는 그의 부하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1907년 7월 2일 이성화의 부하 李炳善은 崔炳泰 등 2명과 함께 전북 金溝郡 下西面 石井里에서 군수품 모집 활동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을 ‘의병’이라고 칭하였다.¹¹⁾

이와 관련하여 그 부하들의 판결문도 주목해야 한다. 金善玉·權金岩·崔順甫 등 이성화 의진 참여자들의 판결문을 보면,¹²⁾ 이들이 ‘義兵’을 빙자한 이성화를 따라 의병투쟁에 나섰음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기록들은 이성화가 일제의 한국 침략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던 1908년을 전후하여 의병 활동을 결심하고 활동에 나아가게 되었던 정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황 증거라고 생각한다.

9) 「權金岩 判決文」, 1909년 9월 8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0) 「許在弘 判決文」, 1909년 9월 20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1) 「李炳善 判決文」, 1909년 9월 6일,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12) 「金善玉 판결문」, 1909년 8월 18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權金岩 판결문」, 1909년 9월 8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崔順甫 외 1인 판결문」, 1909년 8월 25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2) 항일 투쟁

이성화는 1908년 7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09년 10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군수품을 모집하여 군세를 유지하는 한편 더 나아가 밀정 처단, 일본군경과의 교전 등 활약을 이어나갔다. 이성화 의진의 활약상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1908~1909년 이성화 의진의 활동¹³⁾

번호	일자	지휘	유형	활동
1	8.07.15	○	모집	전북 정읍군 南一面 校洞里, 韓八福 등 부하 20명과 총·칼을 소지하고 安東弼 가택 돌입. 엽전 20냥, 닭 4마리 모집.
2	8.07.28 ~15일간	○	상황	전북 井邑·泰仁·古阜郡, 李基三 등 부하 약 15명을 이끌고 횡행.
3	8.07.29 ~9.01.03	○	상황	전북 부안군 所山面 및 기타 촌락, 李順化 등 부하 약 20명과 각각 총기를 휴대하고 횡행.
4	8.08.19 ~09.09	○	상황	전북 井邑·泰仁·淳昌郡 내 촌락, 洪性西 등 부하 14명과 각각 총을 휴대하고 횡행.
5	8.08.28	○	모집	전북 古阜郡 北部面 雲鶴里, 韓八福 등 부하 20명과 함께 羅士一 가택에 돌입하여 엽전 1백 냥 모집.
6	8.09.11 ~09.14	○	모집	전북 古阜·泰仁·井邑·淳昌郡, 金致德 등 부하 25명과 함께 화승총 23정, 칼 2자루를 휴대하고 횡행.
7	8.10.15 ~10.24	○	모집	전북 古阜郡 北部面 雲鶴洞, 金水萬 등 부하 약 30명과 화승총 십수 정을 소지하고 羅燾珍 가택 돌입. 벽시계 1개 및 붉은 담요 1장 모집.
8	8.10.20	○	모집	전북 古阜郡 北部面 欣浪里, 金水萬 등 부하 30명과 화승총 십수 정을 소지하고, 曹德承 가택 돌입. 조덕승 결박 후 화승총 6정과 엽전 80냥 외 수 점 모집.
9	8.11월경	○	상황	전북 古阜·淳昌郡, 부하 80명을 거느리고 활동 중.
10	8.12.20 ~9.01.01	○	상황	전북 淳昌·古阜郡, 金有奉 등 부하 약 50명과 함께 총·칼을 휴대하고 횡행.
11	8.12.23 ~9.01.21	○	모집	전북 古阜郡 番內面 札洞, 金子化 등 부하 40명과 함께 총·검·화승총을 소지하고 殷參奉 방 돌입, 동인에게 唐木 12~13疋 모집.
12	8.12월경	○	상황	전북 古阜·淳昌郡, 부하 80명을 거느리고 활동 중.
13	9.01.01 ~01.12	○	모집	전북 泰仁·古阜郡, 林奉汝 등 부하 15~16명과 총을 휴대하고 횡행.
14	9.01.12 ~01.21	○	상황	전북 淳昌郡 下置面 籠巖 文在化 자택, 申保玄·李成化·盧贊文·李學士·鄭聖玄 등이 회합하여 추후 활동 모색.
15	9.01.19 ~02.03	○	상황	전북 古阜·井邑·泰仁·金堤, 權金岩 등 부하 약 40명과 총기를 휴대하고 의병이라 칭하며 횡행 배회.

번호	일자	지휘	유형	활동
16	9.01.20	○	모집	전북 泰仁郡 古縣內面, 金永植 등 부하 약 20명과 함께 총기 7정을 갖고 金博士 가택 돌입. 家人 협박 후 엽전 140냥을 모집.
17	9.02.08	X	처단	전북 古阜郡 雨日面 有岱里 徐學洙家 東方 약 15間 지점, 부하 15명이 일본인 1명의 오리를 탈취하고 처단.
18	9.02.10 ~02.13	○	상황	전북 古阜·井邑郡, 부하 崔明春 등 약 15명을 이끌고 총기를 휴대하고 횡행 배회.
19	9.02.20 ~03.01	○	상황	전북 古阜·井邑郡, 許在弘 등 부하 15명과 총 5~6정을 휴대하고 의병이라고 하면서 횡행.
20	9.2월경	○	모집	전북 金溝郡 長才洞, 金永植 등 부하 약 20명과 총기를 휴대하고 金某 가택 돌입. 엽전 1백 냥, 짚신 10결례를 모집.
21	9.02.05 ~04.18	○	모집	전북 古阜郡 우일·우덕·대미·거마·궁동면, 申奉烈 등 부하 약 30명 내지 70명과 함께 화승총을 소지하고 이장 및 주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모집.
22	9.02.16 ~02.17	○	상황	전북 泰仁·井邑郡, 金奉安 등 부하 70명과 함께 총을 휴대하고 횡행하며 폭동.
23	9.02.18 ~03.19	○	모집	전북 泰仁·井邑·古阜郡, 崔大形 등 부하 약 50명과 함께 촌민들에게 酒食 모집.
24	9.02.20	○	모집	전북 金堤郡 洪山面 雙弓里, 부하 약 50명을 이끌고 米商趙煥永家 침입. 금품을 모집하고, 가옥을 소각한 뒤 태인군 방면 이동.
25	9.02.20	○	모집	전북 金堤郡 下陽面 新元里, 부하들과 엽총 1정, 韓鍊 36정을 갖고 金參奉을 납치 후 將軍里 黃化淑 家에 分宿.
26	9.02.20 ~03.01	X	처단	전북 古阜郡 長順面 蓮池里, 李成化的 중군장 朴春化(朴引坤)가 다른 부하 鄭仁八과 함께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던 현병보조원 金南京을 처단.
27	9.02.21	○	교전	전북 泰仁郡 龍山面 將軍里, 부하 약 40명을 이끌고 김제현병 분견소 및 주재소 현병·순사와 교전. 8명을 잃고, 현병 상등병과 보조원 각각 1명에게 부상을 입힘. [추정]
28	9.02.20 ~03.21	○	모집	전남 潭陽郡 山幕洞 月山里, 秋再葉 등 부하 약 20명과 총 10정을 휴대하고 李某 가택에서 麻布 10필 모집.
29	9.02.20 ~03.21	○	모집	전북 淳昌郡 북흥면 東湖里, 秋再葉 등 부하 약 20명과 총 10정을 휴대하고 金某 가택에서 葉錢 10兩 모집.
30	9.02.20 ~03.21	○	모집	전북 淳昌郡 북흥면 銀洞, 秋再葉 등 부하 약 20명과 총 10정을 휴대하고 洪進士 가택에서 葉錢 30兩 모집.
31	9.03.01 ~03.13	○	모집	전북 古阜郡, 金有奉 등 부하 약 30명과 함께 총·칼을 휴대하고 횡행.
32	9.03.05	○	모집	泰仁郡 師谷面 流水里, 부하 약 10명과 함께 吳白辰家에서 粗五俵 모집.
33	9.03.05	○	모집	泰仁郡 師谷面 舟橋里, 부하 약 10명과 함께 宋德五家에서 白木綿 41尺外 一品稅金 5圓 40錢 모집.

번호	일자	지휘	유형	활동
34	9.03.11	X	모집	전북 泰仁郡 北村面 九土洞, 부하 약 15명이 姜順京家에 돌입. 雇人 秋德民 체포 결박 후 人蔘 1근, 雜品 약간을 모집 후 古阜郡 伐末面 방향으로 이동.
35	9.03.14	X	모집	전북 古阜郡 西部面 中鶴里, 부하 田德鎭이 金益三 등 7명과 함께 金致成 방에 침입하여 총을 보이며 엽전 30냥 모집
36	9.03.16	X	모집	전북 金堤郡 扶梁面 後浦里, 부하 11명이 내습하여 음식물을 취하고 同郡 洪山面 新村 方向으로 이동.
37	9.03.21	X	모집	전북 泰仁郡 仁谷面 三里面, 부하 약 15명이 면장 宋翊萬家和 張永西家 돌입. 각각 엽전 1貫文씩 총 2貫文 모집.
38	9.03.22 ~03.31	○	모집	전북 淳昌郡 下置洞面 加云里, 柳公述, 許元七, 金公贊 등을 거느리고 尹某 가택 돌입. 엽전 3냥 모집.
39	9.03.29	○	모집	전북 泰仁郡 南村一邊面 伐水洞, 부하 약 30명과 화승총 16정, 한도 2개를 휴대하고 金致仲家·金明七家를 침입하여 牝牛 1두 모집 후 淳昌郡 방면으로 이동.
40	9.03.30	○	교전	오후 6시 전북 泰仁郡 一邊面 柵峙, 부하 약 50명을 이끌고 태인 주재 경찰 및 태인헌병 별동대와 교전 후 순창 방면으로 퇴각.
41	9.3월경	○	모집	전북 古阜郡 北部面 欣浪里, 金永植 등 부하 20명을 이끌고 趙成局 가택 돌입. 엽전 150냥 모집.
42	9.04.05	○	교전	전북 淳昌郡 加布谷 北方. 의병장 申保玄과 함께 약 1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일본군 제2중대 9명과 약 1시간 교전, 부하 30명을 잃고 퇴각. 총 8정 등 물품을 상실. 일제는 의병의 사체를 토대로 그중 일부를 야소교도, 또는 시천교도로 추정.
43	9.04.05	X	모집	전북 泰仁郡 邑內, 부하 金子化가 岡庭傳吾의 方에 돌입. 障子 위 拳銃 1정과 가격 7원 상당 물품 모집.
44	9.04.15	X	모집	전북 泰仁郡 邑內, 부하 金子化가 岡庭傳吾의 方 서측 모퉁이에 걸린 칼 1개와 3엔 상당 물품 모집.
45	9.05.01	○	교전	전북 泰仁郡 仁谷面 槐洞 전방 800미터 지점, 부하 약 50명을 이끌고 화승총 24정, 한도 2진을 휴대한 채 고지대를 선점한 일본군과 교전. 수십 명의 부하를 잃고, 5명이 부상을 당했으나 일본군에는 피해를 주지 못함.
46	9.05.14	○	모집	전북 古阜郡 畚內面 八富洞, 金善玉 등 부하 수십 명을 이끌고 洞長 李成天 가택 돌입. 총기를 보이며 '금품을 공급하라' 위협하여 唐木 2필 모집.
47	9.05.18	○	파괴	전북 泰仁郡 仁谷里 槐洞, 부하 약 15명을 이끌고(과반 총기 휴대) 空家 4호를 방화한 뒤 이동.
48	9.05.18 위 연속	○	모집	전북 泰仁郡 興天面 弓洞, 부하 약 15명을 이끌고(과반 총기 휴대) 금품 모집.
49	9.05.19 위 연속	○	교전	오후 3시, 전북 古阜郡 伐末面 大寺里, 부하 약 15명을 이끌고(과반 총기 휴대) 추격에 나선 상등병 2명, 보조원 4명과 교전. 부하 2명을 잃고, 화승총 4정, 화약 약간을 상실함.

번호	일자	지휘	유형	활동
50	9.05.19 ~06.17	○	모집	전북 泰仁郡 西村面 松山里, 金化春 등 부하 10명을 이끌고 崔士明 가택 돌입하여 그를 납거하여 古阜郡 兩日面 院堂으로 이동, 그곳에서 최사명의 친척으로부터 지폐 20원 모집.
51	9.06.03	○	모집	오후 7시 전북 泰仁郡 西村面 台谷里, 부하 약 40명과 한총 10정을 휴대하고 里長 가택에 돌입하여 석식을 요구했으나 실패. 직후 인근 井邑郡 北面 台谷里 里長 가택에서 요구 후 井邑郡 七步山 方面으로 이동.
52	9.06.08	○	모집	오후 1시경 전북 古阜郡 宮東面 東谷里 長內里 外 二部落, 부하 5명을 이끌고 3일간 分宿하여 식비 17원 50전을 징발하고 오후 7시경 어디론가 이동.
53	9.06.10 ¹⁴⁾	○	모집	오전 8시 古阜郡 梧琴面 角木里, 부하 약 11명과 함께 한총 7정과 한도 2진을 휴대하고 金德仲宅을 내습, 이성화는 부하 2명과 해당 집에서 휴게하고 나머지는 農具를 휴대하고 전포를 배회하며 식비 2원 20전을 징발한 뒤 오후 8시경 인근 畚內面 禮洞 方面으로 이동.
54	9.06.11	○	모집	오후 8시경 전북 古阜郡 畚內面 蓼洞, 부하 5명과 각황색 한의를 착용하고 화승총 5정을 휴대한 채 禮聖局宅 내습. 금전 80냥을 요구했으나 실패하고 의복을 징발한 뒤 이동.
55	9.06.12	○	교전	오후 8시경, 전북 古阜郡 優德面 斗池里, 부하 약 15명을 이끌고 고부헌병분견소 헌병 3명, 보조원 5명, 통역 1명과 조우하여 교전. 부하 돌을 잃고, 북쪽 松山里 方向으로 이동. 이 과정에서 억류하고 있던 태인군 거주 양반 1인이 귀가.
56	9.07.02	○	모집	전북 古阜郡 北部面 欣浪里, 부하 陳相九 등 부하 20명과 함께 총기 20정을 각기 소지하고 趙參奉 집에 돌입, 가인을 위협한 뒤 엽전 100냥을 징발.
57	9.07.02	X	모집	전북 金溝郡 下西面 石井里, 부하 李炳善이 崔炳泰 외 1명과 함께 金敬泰의 집에 돌입, 총을 보이면서 의병임을 밝히고 금전을 요구하여 100냥짜리 票를 모집.
58	9.07.02	X	모집	전북 金溝郡 下西面 石井里, 부하 李炳善이 崔炳泰 외 1명과 함께 崔心日의 집에 돌입, 총을 보이면서 의병임을 밝히고 금전을 요구하여 엽전 300文, 은제(銀製) 煙管 1本, 망건(網巾) 1개, 선자(扇子) 1本 모집.
59	9.07.14	○	모집	전북 泰仁郡 西村面 丹山里, 부하 7명을 이끌고 黑黃의 韓衣를 착용하고 韓銃 5挺 韓刀 1振을 소지한 채 面長 金榮基 家宅에 돌입, 前日 公務領收員 崔公西로부터 들어온 笠袋 內 殘幣 23圓, 笠 1個, 木綿 2反, 草鞋 17雙을 징발.
60	9.07.14 위와 연속	○	처단	전북 泰仁郡 西村面 丹山里, 부하 7명을 이끌고 黑黃의 韓衣를 착용하고 韓銃 5挺 韓刀 1振을 소지한 채 面長 金榮基 家宅에 돌입, 부하 4명을 시켜 里長 諸化日을 데려와 전날 밀정 행위로 부하 2명이 사살된 것을 꾸짖고 칼과 총으로 난타 후 왼팔과 가슴, 허리에 각각 한 발씩 총을 쏘.
61	9.07.15	○	모집	전남 智島郡 境火島 上里, 李京先 등 부하 7명과 총을 소지하고 주민 李道汝에게 의병임을 밝히고 군자금을 요구하여 20원을 모집하고, 같은 마을의 白書房에게도 20원을 징발.

번호	일자	지휘	유형	활동
62	9.07.17 위와 연속	○	모집	전남 智島郡 蝸島面 楸念里, 李京先 등 부하 7명과 총을 소지하고 선창에서 里長 宋某에게 본인들이 의병임을 밝히고 군자금 20원 모집.
63	9.07.17 위와 연속	○	모집	전남 智島郡 蝸島面 太和黃里, 李京先 등 부하 7명과 총을 소지하고 洞長 某에게 본인들이 의병임을 밝히고 군자금 16원 모집.
64	9.07.20	○	모집	전남 智島郡 蝸島·食島·飛丁島, 부하 8명을 거느리고 酒幕 金順載方에 잠입하여 부근에서 활동 후 부하 6명과 함께 古阜郡 방면으로 이동.
65	9.08.16	X	모집	전북 泰仁郡 仁谷面 朴山里, 부하 3명이 양총 2정, 죽봉 1본을 휴대하고 里長 金允集方 돌입. 구타 후 포박하고 엽전 3兩, 鶴二羽 代金 16錢, 草魁 2豆 代金 8錢을 징발 후 金溝 방면 이동.
66	9.10.04	○	모집	전북 古阜郡 西部面 中鶴里, 田德嶺 등 부하 3명과 곤봉을 소지하고 黃德文 방에 돌입, 唐木 4필 징발.

* '일자'의 첫 자리 '8'과 '9'는 각각 '1908'과 '1909'를 의미함.

* '일자'는 '양력'으로 환산된 날짜이며, 자료의 '일자 미상'은 해당 월 전체를, '상순'은 1~10일, '중순'은 11~20일, '하순'은 21~끝날, '말경'은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일 전(총 5일)까지를 계산하여 기입함.

* '지휘'는 이성화 참여 여부임.

- 13) 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⑤『韓八福 判決文』, 1910년 3월 9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②『李基三 判決文』, 1909년 7월 28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③『李順化 判決文』, 1909년 7월 23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④『洪性西 判決文』, 1909년 7월 28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⑥『金致德 判決文』, 1909년 7월 23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⑦⑧『金水萬 判決文』, 1909년 7월 23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⑨宮川武行(全羅北道警察部長), 1908, 『全北警秘收第265號:暴徒狀況月報』,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冊 諸통계표』; ⑩⑪『金有奉 判決文』, 1909년 7월 28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⑫⑬⑭『金子化 判決文』, 1909년 10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⑮松井茂(警務局長), 1909, 『高秘發第18號:暴徒首魁에 관한 調查報告』,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⑯『林奉汝 判決文』, 1910년 3월 9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⑰明石元二郎, 1909, 『憲機第506號:全北泰任分遣所長報』; ⑱『權金岩 判決文』, 1909년 9월 8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⑲⑳㉑『金永植 判決文』, 1909년 10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㉒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433號』,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㉓『崔明春 判決文』, 1910년 7월 8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㉔『許在弘 判決文』, 1909년 9월 20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㉕『申奉烈 判決文』, 1909년 7월 23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㉖『金奉安 判決文』, 1909년 10월 27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㉗『崔大形 判決文』, 1909년 7월 23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㉘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216-2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冊 各道 警務局 II』; ㉙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223-2號:暴徒討伐ノ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㉚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10, 『高秘收第356號:暴徒逮捕ノ件』, 『隆熙 4年 暴徒에 관한 編冊 各道로 區分하기 어려운 分』; ㉛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213-2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

위 <표 2>는 1908~1909년간 이성화의 활약상을 정리한 것이다. 이성화와 그 부하들의 행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가 특정되는 경우를 추출하였고, 이를 시점 순으로 정렬하여 작성하되 활동 유형은 크게 ‘모집’·‘상황’·‘교전’·‘처단’·‘파괴’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¹⁵⁾ 이를 통해 이성화 의진의 활동 일자와 장소, 그 대략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성화의 부하들이 활동한 내용도 같이 담아보았다.¹⁶⁾

柵 全羅北道 警務局]; ㉔㉕㉖「秋再葉 判決文」, 1909년 10월 8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㉗㉘「田德鎭 判決文」, 1910년 2월 18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㉙㉚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283號:暴徒來襲ノ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㉛㉜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354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3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㉝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308號:暴徒來襲ノ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㉞「柳公述 判決文」, 1909,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관결일 미상); ㉟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397號」,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㊱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373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㊲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398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㊳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第539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㊴金善玉 判決文, 1909년 8월 18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㊵㊶㊷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587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㊸「金化春 判決文」, 1909년 10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㊹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675號:暴徒出沒ノ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㊺㊻㊼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715號:暴徒ノ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㊽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735號:暴徒ノ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㊾「陳相九 判決文」, 1909년 10월 15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㊿㉀「李炳善 判決文」, 1909년 9월 6일,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889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7月~12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II』; ㉃㉄㉅「崔順甫 외 1인 判決文」, 1909년 8월 25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佐藤利三郎(群山警察署長), 1909, 「群高秘收第351號:暴徒搜查狀況」;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1054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7月~12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II』.

- 14) 본 활동의 근거가 되는 「高秘收第715號:暴徒ノ件」 자료에는 이와 함께 총 세 건(㉙㉚㉛)의 활동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활동일이 각각 6월 8일(㉙), 6월 11일(㉚), 6월 10일(㉛)로 일반적인 기술 순서와 맞지 않고, 활동 내용을 봐도 11일(㉚)과 10일(㉛)을 각각 10일(㉙)과 11일(㉛)로 바꾸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에 본 글에서는 양 활동의 날짜를 바꿔 기재하였음을 밝힌다.
- 15) 이 다섯 가지 구분 중 ‘상황’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일부에 한해 타 의병장과의 연대와 관련된 내용도 있기는 하나 대개는 이성화의 군수품 모집 활동과 맥을 같이 한다.
- 16) 이성화 의진의 활동 패턴을 보면 전북과 그 경계인 담양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데,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확인되고 있다. 61~64번이 이에 해당하는데, 활동 장소가 국토 남단에 해당하는 전남 지도군이였다. 문제는 지도군을 제외하면 이성화가 활약한 가장 남방이 전남 담양이였다. 전남에서도 가장 북단

먼저 의병 투쟁의 토대가 되는 군수품 모집 활동부터 보자. 이성화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1908년 7월경이었다. 이때부터 이성화와 그 부하들의 군수품 모집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 시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진들은 일제에 맞서기 위해 무기와 식량, 군자금에 필요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의병 투쟁을 끝내는 날까지 지속하였다. 그리고 이는 이성화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1908년 7월 15일 전북 정읍군 南一面 校洞里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1909년 10월 4일 古阜郡 西部面 中鶴里에서의 활동까지 1년 넘는 의병 투쟁 속에서 최소 45건(1·5~8·11·16·20~21·23~25·28~39·41·43~44·46·48·50~54·56~59·61~66) 이상의 모집 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이때 모집의 대상은 엽전 등 금전을 시작으로 때로는 닭과 같은 가축을 망라하고 있었고(1번), 때로는 벽시계나 담요 같이 군수물자나 군자금으로의 환금이 가능한 것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7번). 그만큼 이성화 의진의 군수품 모집 활동은 의진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었고, 다른 유형의 활동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진의 이동 등 그때그때의 상황을 분류한 ‘상황’ 유형의 활동도 큰 틀에서 군수품 모집 활동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 ‘상황’은 일제가 ‘橫行’이라는 표현으로 비하했던 활동의 경향성인데, 의진들이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인근 고을을 돌며 군수품을 모집하고, 기회를 틈타 일본군경과 교전을 벌이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성화 의진의 활동을 보면, 12건(2~4·9·10·12~15·18·19·22) 정도를 ‘상황’으로 분류 가능하다.

그런데 14번의 사례는 좀 예외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이성화는 1909년 1월 12일부터 21일 사이, 전북 淳昌郡 下置面 籠巖 文在化 자택에서 申保玄·李成化·盧贊文·李學士·鄭聖玄 등과 회합하였고, 이후의 활동을 모색하였다. 이는 이성화가 당시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다른 의병장들과 연대활동을 모색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처단’ 활동을 보자. 이는 밀고자 등 의진의 활동에 해가 되거나 또는 의병의 활동 목표인 일본인 등을 말 그대로 ‘처단’한 사례이다. 이성화 의진의 활동에 있어서는 총 세 건을 확인했는데, 이 중 두 건은 이성화와는 별개로 부하들의 활동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우선 이성화가 주도한 처단 활동을 보자. 그는 1909년 7월 14일, 전북 泰仁郡

에 해당하는데, 그 담양과 지도 사이에는 직선 상으로도 창평·화순·능주·장흥·강진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의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직전 전북 태인군에서 활동하던 이성화가 하루 만에 전남 지도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西村面 丹山里에 부하 7명과 함께 들어가 面長 金榮基 家宅에 돌입하였다. 이곳에서 里長 諸化日을 데려와 전날 밀정 행위로 부하 2명이 사살된 것을 꾸짖고 칼과 총으로 난타 후 왼팔과 가슴, 허리에 각각 한 발씩 총을 쏘았다(60번). 이의 부하들에 의해 주도된 것도 있었는데, 먼저 1909년 2월 8일, 전북 古阜郡 雨日面 有岱里 徐學洙家 東方 약 15間 지점에서 부하 15명이 일본인 1명의 오리를 탈취한 뒤 처단하였고(17번), 1909년 2월 20일부터 3월 1일 사이에는 전북 古阜郡 長順面 蓮池里, 李成化의 중군장 朴春化(朴引坤)가 다른 부하 鄭仁八과 함께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던 헌병보조원 金南京을 처단한 일이 있었다(26번).

다음으로 ‘파괴’는 1건의 사례가 확인된다. 1909년 5월 18일, 이성화는 전북 泰仁郡 仁谷里 槐洞에서 부하 약 15명과 함께 空家 4호를 방화한 뒤 興天面 弓洞으로 이동하였다(47번). 이성화가 빈집을 방화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정도 추측 가능하다. 방화한 마을에서 이성화 의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활동 과정에서 밀고와 같이 의진의 활동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전’을 보자. 일제와의 교전은 의병 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일제 구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지만, 반대로 의병들에게는 가장 험난한 활동이기도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의병은 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민간에서 주로 조달해야 했고, 그마저도 화승총 등 열악한 무기를 갖고 최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의 교전에서 승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이성화 의진의 활동상에서도 그 고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실제 이성화 의진의 교전은 6회(27·40·42·45·49·55) 확인되는데, 그 시기는 이성화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1909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만, 손실은 이성화 의진 측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실제 의진의 피해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 5건을 보면, 특히 그중 3건은 이성화 의진의 피해가 매우 컸다. 먼저 1909년 2월 21일 전북 泰仁郡 龍山面 將軍里, 부하 약 40명을 이끌고 김제헌병분견소 및 주재소 헌병·순사와 교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헌병 상등병과 보조원 각각 1명에게 부상을 입히긴 했지만 부하 8명을 잃었다(27번). 다음으로 4월 5일에는 의병장 申保玄과 연합의진을 구축하여 약 100명의 병력으로 일본군 제2중대 9명과 淳昌郡 加布谷 북방에서 교전을 벌였다가 30명가량의 부하를 잃었고(42번),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5월 1일에는 泰仁郡 仁谷面 槐洞 전방 800미터 지점에서 부하 50명을 이끌고 일본군과 교전을 했으나 역시 5명의 부하가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45번).

3) 의진 해산과 순국

이성화는 1908~1909년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나 그 세력은 190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위축되고 있었다. 이는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를 정량적 측면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일제가 남긴 『暴徒勢力比較表』가 아닐까 생각한다. 『暴徒勢力比較表』는 1908년 하반기부터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각 도별로 해당 지역에서 활약했던 의병장들의 동태를 몇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표로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성화에 대한 내용도 확인되므로, 우선 이를 통해 이성화 의진의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1909년 『暴徒勢力比較表』를 통해 본 이성화 의진 동향¹⁷⁾

번호	시점	이성화 의진		일제 탄압				
		규모	습래	경찰	헌병	수비대	연합	탄압 계
1	1월	70	5	1	4	3	0	8
2	2월	60	9	5	10	3	3	21
3	3월	60	45	12	14	13	4	43
4	4월	60	15	7	3	3	1	14
5	5월	60	17	9	12	4	1	26
6	6월	60	13	8	9	3	1	21
7	7월	24	8	14	4	7	1	26
8	8월	24	4	25	11	7	1	44
9	9월	20	1	10	5	3	1	19
합계	9개월	438	117	91	72	46	13	222

- * '시점'은 보고 내용의 기준이 되는 때이며, '1월'은 '1909년 1월'을 의미함.
- * '규모'는 일제 보고에서 나타나는 이성화 의진의 규모임.
- * '습래(襲來)'는 이성화의 활동 횟수이고, '경찰'·'헌병'·'수비대'는 각각 경찰·헌병·수비대로부터 받은 탄압 횟수임.
- * '연합'은 '경찰'·'헌병'·'수비대'가 연합하여 이성화 의진을 탄압한 횟수임.
- * '탄압 계'는 '경찰'·'헌병'·'수비대'·'연합' 탄압의 합계임.

17) 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保安課長, 1909, 『高秘發第68號:暴徒狀況에 관한 諸調査表報告』,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冊 諸 통계표』; ②全羅北道警察部, 1909, 『高秘發第25號:二月 暴徒勢力比較表』, 『隆熙 3年 中 暴徒 被害資料』; ③全羅北道警察部, 1909, 『高秘發第34號:三月 暴徒勢力比較表』, 『隆熙 3年 中 暴徒 被害資料』; ④全羅北道警察部, 1909, 『高秘發第39號:四月 暴徒勢力比較表』, 『隆熙 3年 中 暴徒 被害資料』; ⑤全羅北道警察部, 1909, 『高秘發第45號:五月 暴徒勢力比較表』, 『隆熙 3年 中 暴徒 被害資料』; ⑥1909, 『高秘發第53號:暴徒에 관한 諸表』, 『隆熙 3年 中 暴徒 被害資料』; ⑦全羅北道警察部, 1909, 『高秘發第61號:七月 暴徒勢力比較表』, 『隆熙 3年 中 暴徒 被害資料』; ⑧全羅北道警察部, 1909, 『高秘發第111號:八月 暴徒勢力比較表』, 『隆熙 3年 中 暴徒 被害資料』; ⑨全羅北道警察部, 1909, 『高秘發第68號:九月 暴徒勢力比較表』, 『隆熙 3年 中 暴徒 被害資料』.

위 <표 3>은 1909년 1~9월 사이 이성화 의진의 변천을 보여준다. 먼저 규모를 보면, 190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연인원은 438명이었다. 1월 70명이었던 의진의 규모는 일제의 ‘남한폭도토벌’ 작전이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인 1909년 9월경 20명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이성화 의진의 활약도 1월 5회에서 3월 45회까지 크게 증가하기도 했지만, 이후 활동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9월이 되면 단 1회의 활동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일제의 탄압이었다. 이성화 의진은 1909년 9개월간 총 222회의 탄압을 받았는데, 시기로 보면 이성화가 가장 활발한 활약을 보인 3월과 ‘남한폭도대토벌’이 진행 중이던 9월에 그 탄압이 집약되고 있었다. 3월의 경우가 활약에 대한 반작용이었다면, 9월은 일제의 조직적인 탄압이 극에 달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주지하듯 이 시기 일제는 호남의병을 집중적으로 탄압하고 있었고, 그 대표적 사건이 1909년 9월 이래 자행된 소위 ‘南韓暴徒大討伐’이었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성화 역시 일제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던 것이다.

그 결과 이성화 의진은 급격하게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의진 구성원들의 체포 동향이다. 일제의 의병 탄압 보고자료에서 나타나는 이성화 의진 참여자의 체포 내용을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1909~1910년 이성화 의진 참여자 체포 동향⁸⁾

번호	일자	대상	내용
1	9.07.05	부하 2인	전북 정읍군, 부하 2인이 고부경찰서 鄭警部 예하 변장수색대에게 체포.
2	9.07.23	부하 2인	전북 萬頃郡 下一道面 深浦里, 부하 2인이 21일 파견된 형사 및 주재 순사의 협력 수사 과정에서 체포.
3	9.07.28	金善玉	전북 古阜郡 所井面 野下里, 부하 金善玉 체포. 등 부하 약 20명과 각각 충기를 휴대하고 횡행.
4	9.08.07	金魯性	전북 金堤郡 시장, 고부경찰서장이 밀정을 동원하여 탐지 후 일한 순사 5명을 이끌고 7일 金魯性을 체포.
5	9.08.08 ~08.10	金萬植	전북 古阜郡, 고부경찰서장이 일한순사 5명을 이끌고 김노성 체포 직후 8~10일 金萬植 체포.
6	9.08.16	李炳善	전북 金溝郡 一北面 禿禾里 泗幕, 李炳善이 다른 두 명과 함께 泰仁郡 仁谷面 朴山里 里長 金允集方에서 군자금을 모집한 뒤 체포.
7	9.08.18	부하 1인	전북 金溝郡 下北面 井石里, 이성화의 부하들이 茶褐色 복장을 하고 습격에 나섰다가 부하 1명이 금구 주재 순사에게 체포.

번호	일자	대상	내용
8	9.09.16	李化春	전북 泰仁郡 西村面 五橋里, 李化春이 고부경찰서장 예하 일한순사 8명에게 체포된 뒤 古阜郡 北部面에 은닉한 한도 1振 자백.
9	9.09.17	權金岩	전북 泰仁郡 古縣面, 權金岩이 고부경찰서장 예하 일한 순사 8명에게 체포.
10	9.09.20 ~09.27	秋再葉	秋再葉이 古阜警察署 鄭警部 이하 6명의 井邑·泰仁·淳昌·長城·潭陽 수색 과정에서 체포.
11	9.9월경	金奉安	金奉安이 全州警察署에서 과건된 변장수색대의 泰仁·淳昌·南原 수색 과정에서 체포됨.
12	9.10.27	高成杓	高成杓가 변장수색대의 전북 전주·임실·순창 수색 과정에서 체포.
13	10.03.02	鄭仁八	전북 井邑郡 東面 用岩里, 鄭仁八이 1909년 2월 초순 이성화 의진의 중군장 朴春化를 체포하려던 헌병보조원을 처단한 일로 체포.

* '일자'의 첫 자리 '9'와 '10'은 각각 '1909'과 '1910'을 의미함.

* '일자'는 '양력'으로 환산된 날짜임.

위 <표 4>는 1909~1910년에 걸쳐 이성화 의진에서 활동하던 중 체포된 이들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보면, 이들이 체포된 시기는 190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여 1910년 3월경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수는 15명이었는데, 부하들이 체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앞서 '暴徒勢力比較表'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시기가 묘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를 보면 6월까지 60명 수준을 유지하던 의진이 7월 이래 20명대로 크게 위축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제의 다른 보고 자료에서도 7월부터 부하들이 속속 체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제의 의병 탄압 방식이 점점 더 조직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제는 한국인들의 복장으로 위장한 변장대를

18) 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發第51號』, 『隆熙 3年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南北·慶尙南北 警務局 II』; ②佐藤利三郎(群山警察署長), 1909, 『群高秘收第351號:暴徒搜查狀況』; ③『李順化 判決文』, 1909년 7월 23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④⑤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1025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7月~12月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II』; ⑥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1054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7月~12月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II』; ⑦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1027號:暴徒逮捕ノ件』, 『隆熙 3年 7月~12月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II』; ⑧⑨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1126號:暴徒に關する件』; ⑩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1286號:暴徒首魁逮捕ニ關スル件』; ⑪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1382號:暴徒逮捕の件』; ⑫宮川武行(全羅北道警察部長), 1909, 『高秘發第76號:暴徒搜索ニ關スル件』, 『隆熙 3年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南北·慶尙南北 警務局 II』; ⑬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10, 『高秘收第356號:暴徒逮捕ノ件』, 『隆熙 4年 暴徒에 관한 編冊 各道로 區分하기 어려운 分』.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색대를 조직하여 의병을 추격하되, 추격지 소재 경무관서의 병력을 동원하여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밀정을 놓아 의병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한편, 지역의 관리와 유력자 등을 동원하여 지역민들이 의병을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1909년 7월 5일 체포된 이성화의 부하 2인과 9월 경에 체포된 金奉安, 그리고 10월 27일에 체포된 高成杓였다. 이들의 체포 과정에 대한 일제 보고 내용에는 ‘變裝搜索隊’를 이용하여 의병을 붙잡았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8월 7일 체포된 金魯性은 일제가 놓은 밀정에게 행적이 발각되어 붙잡힌 경우였다.

이 같은 배경에서 1909년 하반기가 되면 이성화 의진의 활동의 사실상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남한폭도대토벌’이 시작되는 8월, 이미 이성화 의진의 활동은 4회에 불과하여 활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고된 3월 45회 대비 8.8%로 활동이 급감하였고, 이마저도 한 달 뒤인 9월이 되면 1회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성화 의진의 활동 침체 정황은 다른 보고에서도 진작에 확인되고 있었다. 이미 7월경 전라북도 의병의 활동에 대한 일제 내부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泰仁郡 부근에서 횡행하던 수괴 李成化는 지지난달 이래 수차례의 공격을 만나 부하를 거의 전부 잃고 간 곳을 알지 못함”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¹⁹⁾ 비슷한 내용은 이후 몇 달에 걸쳐 다른 보고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警務局長 松井茂이 1910년 3월 9일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李成化가 20명의 부하를 이끌고 고부·태인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2월 중에는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있고,²⁰⁾ 또 全羅北道警察部長 宮川武行이 1910년 4월 20일 보고한 내용에도 “古阜警察 下에 있어서는 이제는 전혀 暴徒의 勢力은 없고 首魁 申甫鉉·李成化 같은 者は 巧妙하게 踪跡을 감추어 銳意 이들의 搜查에 힘쓰고 있으며…….”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²¹⁾ 이외 이성화의 족적과 관련된 마지막 보고 역시 이와 비슷했다. 全羅北道警察部長 長吉庚庚이 1910년 7월 19일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에 猛威를 떨쳤던 首魁 李錫庸·申甫鉉·鄭聖賢·

19) 국사편찬위원회, 1999, 『明治四十二年七月中管内情況 一般ノ狀態』, 『統監府文書』 6, 285쪽.

20) 宮川武行(全羅北道警察部長), 1910, 『高秘收第290號:暴徒狀況月報』, 『隆熙 4年 暴徒狀況月報』.

21) 宮川武行(全羅北道警察部長), 1910, 『高秘發第390號:暴徒狀況報告』, 『隆熙 4年 暴徒狀況月報』.

金洞九·金永澤·文太守·李成化 등은 지난 봄 以來 居處를 감추어 그들의 足跡에 對하여는 아직도 端緒를 얻지 못하고 있음…….”이란 내용이 확인된다.²²⁾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보면, 이성화 의진은 1909년 상반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남한폭도대토벌’이 본격화되는 1909년 8월을 전후하여 일제로부터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부하들이 체포되는 가운데 이성화 역시 1909년 하반기 이래로는 이렇다 할만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성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미국에서 발간되던 『新韓民報』의 1911년 9월 27일자 기사에 이성화의 순국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²³⁾ 해당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의병장의 병스

전라북도 고부군 우일면 가정리에 사는 이성화씨는 연금 30인데, 왜적의 침략함을 분연히 막고자하여 강꺼한 뜻을 품고 융희 원년부터 4년까지 부하에 5~60명 긴장한 남아를 거느리고 태인·정읍·고부·홍덕·부안·고창·무장·순창·영광군으로 내왕하며 일본헌병경찰을 많이 포살하든 장수라. 일본 경찰은 전력을 기울여 사면으로 체포코자 하나 마침내 잡히지 않았다가 각처에서 상응하는 힘이 없음을 보고 포연히 부하를 헛치고 때를 기다리다가 본년 7월부터 본격한 피가 가슴에 맺혀 우연히 중병이 됨에 이대장은 류근일이라 변성명하고 전주 서문 밖 미국선교사의 병원²⁴⁾에 들어가 치료하였으나 백약이 무효하여 27일에 황천 원혼이 되었다더라.

22) 長吉弘庚(全羅北道警察部長), 1910, 「高秘收第31號:暴徒狀況報告」, 『隆熙 4年 暴徒狀況月報』.

23) 『新韓民報』, 1911년 9월 27일, 「의병장의 병스」.

24) 심사자께서 ‘미국선교사의 병원’에 대해 현재 전주시에 위치한 예수병원의 후신 ‘엠마오사랑병원’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셨다. 2023년 6월 ‘전북CBS <토요일에 만나요, 유연수입니다>’에 출연한 주명진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건립된 근대식 병원으로 1898년 처음 의료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성화 순국 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그가 이곳에서 진료를 받았을 개연성은 충분한데, 다만 유의할 점은 본 병원이 1898년 은송리 진료소로 출발, 1902년 화산동의 기와집 진료소를 거쳐 1912년 지금 엠마오사랑병원 위치로 왔다는 사실이다. 이성화가 순국한 시점이 1911년이므로, 아마도 화산동의 기와집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을까 추정되나 문제는 해당 진료소의 위치가 지금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노컷뉴스』, 2023년 6월 10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전주 의료선교 순례길」).

물론 이외에도 이성화의 순국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²⁵⁾ 따라서 이성화의 사망 시점과 경위가 명확하게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위 『新韓民報』 기사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한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성화는 1911년 7월 27일 전북 전주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²⁶⁾

3. 의진 운영과 참여자

1) 의진 운영

이성화의 의진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그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른바 활동 영역이 될 터인데, 이는 다음의 지도를

-
- 25) 예컨대 족보(2001, 『增補 第九刊 德水李氏世譜』禮編 下, 786쪽)에서는 李敏孝(號 成華)가 1910년 7월 15일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李敏孝를 이성화로 특정한다고 해도 그 순국 시점과 배경에 대한 전말을 전혀 알 수 없다. 또 국가보훈부에서 공개한 공적조서와 독립기념관에서 공개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서는 이성화의 순국 시점을 7월 10일로 특정하였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특히 국가보훈부 공적조서에는 참고문헌이 있는데, 해당 참고문헌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공적조서에 제시된 양식 그대로 전재함). ①判決文(1910. 7. 8. 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②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13輯 418·440·831面; ③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18輯 83~85面; ④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3卷 801面; ⑤全北義兵史(全北鄉土文化硏究會, 1992) 下卷 527面; ⑥全羅北道誌(全羅北道, 1989) 第1卷 855·856面; ⑦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14輯 384面; ⑧韓國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第1卷 832面; ⑨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卷 537面; ⑩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515·623·683·916面; ⑪朝鮮獨立運動(金正明) 第1卷 83·224面. 한편 이 문제의 해답과 관련해서는 1992년 발간된 『全北義兵史』 하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저서에는 “..... 이후 이성화가 왜적에게 체포되거나 처형당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앞에 소개한 德水李氏世譜에는 그의 졸년(卒年)이 191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성화는 이 해에 벌어진 어느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全北鄉土文化硏究會, 1992, 『全北義兵史』 下卷, 527~528쪽).
- 26) 이성화의 순국과 관련된 기사가 왜 미주에서 발간되던 『新韓民報』를 통해 소개되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답은 이성화의 순국 시점에 있다. 경술국치 직전까지는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가 의병의 활약상을 전달했지만, 이들 신문이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과 함께 폐간되거나 일제의 기관지로 변질되면서 보도의 기초가 크게 변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이성화가 선교사의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성화의 순국에 대한 내용이 『新韓民報』를 통해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보도되는 것도 정황상 이상하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해 그 대략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다.



- 행정구역은 1897년 기준임.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성화 의진의 활동 범위임.

<그림 1> 이성화 의진의 주요 활동 지역

상기 <그림 1>은 이성화와 그의 부하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성화가 주로 전라북도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김제와 만경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가 있었던 곳이었으므로, 동시기 활약한 金東臣이나 文泰洙 등과는 달리 산지보다는 평지를 중심으로 활동했음이 드러난다. 물론 전북의 경계를 넘어 전남 담양에서 활동을 한 사례도 있고, 앞서 언급했듯이 다소 의아하긴 하지만 전남의 지도군에서 활동한 내용도 있지만 주 활동무대는 전북 서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편제를 보자.²⁷⁾ 현재로서는 이성화가 실질적으로 부대를 어떻게 조직하여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부하 朴春化에 대한 일제의 기록을 참고할 수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1909년 3월 8일 이성화의 또 다른 부하였던 鄭仁八과 함께 고부현병분견소 현병보조원 金南奎를 처단하였다. 그런데 일제는 정인팔이

27) 군대에서 ‘編制’는 최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조직에 임무와 기능을 부여하고, 정원 및 장비의 책정 및 지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가리킨다(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박춘화의 부하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박춘화를 두고 이성화의 ‘中軍將’이라고 지칭하였다.²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성화 역시 같은 시기 여타 의병장처럼 전통적인 육군 편제, 즉 선봉·중군·후군·좌우의 등으로 구분된 일반적인 편제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²⁹⁾

이와 함께 이성화가 나름의 편제를 두고 활동했으리라 추정 가능케 하는 사례가 하나 더 있다. 1909년 8월 18일 이성화의 부하가 전북 金溝郡 下北面 井石里에 진입했다가 금구 주재 순사에게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일제는 체포한 의병을 李成化의 부하로 특정하였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압수한 물품 중 ‘湖南昌義所’라고 새긴 印章이 있었다는 사실이다.³⁰⁾ 물론 이 ‘호남창의소’가 구체적 실체를 갖는 조직체인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印章을 만들었다면 분명 격문의 작성·배포 등의 활동 속에서 ‘호남창의소’를 표방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성화 의진의 병력 규모를 보자. 사실 병력의 규모는 같은 시기 지역에서 활동한 여타 의진과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었고, 활동에 따라서도 병력의 규모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 그는 1908년 이래 수십 차례 활동을 벌였는데, 시기와 활동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고 있었다. 우선 시기의 경우, 1908년 11월경 약 80명의 부하를 이끌고 활약할 정도로 세력이 확장되었으나 이렇게 유지되던 규모가 일제의 ‘남한 폭도대토벌’이 시작되는 1908년 8월경이 되면 약 20명가량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었다. 즉 의진의 규모는 1908년 하반기 고점을 찍고 이후 1909년 6월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사실상 소멸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한편 활동을 놓고 보면 이성화 의진의 대다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군수품 모집은 보통 20명 내외의 병력을 이끌고 진행하였고, 더러 일본 군경과 교전을 할 경우에는 최소 15명에서 보통 40명, 많으면 50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었

28)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10, 『高秘收第356號:暴徒逮捕ノ件』, 『隆熙 4年 暴徒에 關한 編冊 各道로 區分하기 어려운 分』.

29) 실제 이 시기 지역의병장들은 고래의 전통적 편제를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미의병기 삼남의 가장 대표적 지역의병장 중 한 명이었던 文泰洙는 1909년 2월 ‘智理山義兵所大將 文慶秀’ 명의로 발의한 通告文에서 자신들의 편제를 智理山義兵所大將·左翼將·右翼將·中軍·參謀長·參謀士·運糧監·指揮士·察機士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국사편찬위원회, 1999, 『統監府文書』 9, 137~138쪽). 또한 충북과 경북의 경계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趙雲植도 유사한 편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자신이 배포한 ‘告諭文’에 따르면 그는 倡義將·左翼將·右翼將·護軍將·調練官 등의 편제를 활용하고 있었다(坂東榮次郎, 1909, 『忠北警秘收第1386-1號:暴徒首魁就捕 詳報』).

30)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1027號:暴徒逮捕ノ件』, 『隆熙 3年 7月~12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II』.

다. 물론 이보다 많은 사례도 있는데, 신보현 의병장과의 연대 하에서는 1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교전에 나선 바도 있었다.³¹⁾ 이렇게 지휘 병력이 상시적으로 변했던 것은 군량과 자금을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관계 깊다. 이 이상의 병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고, 이성화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무기체계를 보자. 이 시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진들은 일제에 비해 열악한 무기를 갖고 투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이는 이성화 의진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1908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성화는 金致德 등 부하 25명과 함께 전북 古阜·泰仁·井邑·淳昌郡 등지에서 군수품을 모집했는데, 이때 화승총 23정과 칼 2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³²⁾ 또 전라북도관찰사의 1909년 5월 13일자 보고에 따르면, 이성화는 부하 약 50명과 함께 각각 황색과 백색의 한의를 착용하고 화승총 24정과 한도 2진을 갖고 태인군 인곡면에 들어가 군수품을 모집하고 일본군과 교전한 예가 있었다.³³⁾ 또 1909년 8월 18일 이성화의 부하들이 金溝郡 下北面 井石리에 진입했을 때도 이들은 茶褐色 복장에 총기 3정과 화약 약간을 소지하고 있었다.³⁴⁾ 이처럼 이성화는 이 시기 지역의진의 일반적인 무장 수준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는 일제에 비해 열악한 무기체계를 유지한 채 활동했음을 알려준다. 위의 사례에서 보이듯 지휘병력의 절반 정도 되는 총기를 갖고 활동에 나섰는데, 그마저도 화승총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화도 일제보다 열세였던 화력을 보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중국인을 통한 무기 구입 시도가 주목된다. 1909년 3월 3일자 태인군 순사 주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이성화가 중국인을 통해 총기 300정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하였고, 그 내용은 泰仁郡 古縣面 杏壇里에서 체포된 이가 진술했다는 것이다.³⁵⁾ 물론 이에 대해 일제 역시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분명치 않다고 선을 긋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성화 의진의 전후 활동에서도 이렇게 많은 신식 소총을 활용한 예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시도가 성공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는

31)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398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32) 「金致德 判決文」, 1909년 7월 23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33)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第539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34)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1027號:暴徒逮捕ノ件」, 『隆熙 3年 7月~12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II』.

35)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283號:暴徒來襲ノ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이성화도 다른 여타 의병장처럼 무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단순히 무기의 구입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더 부언할 필요성이 있다. 이성화는 무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위장술을 활용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일제와 정면으로 충돌하였을 경우 무기와 물자가 부족했기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1909년 6월 11일 부하 10명과 韓銃 7정, 韓刀 2진을 갖고 古阜郡 梧琴面 角木里 金德仲의 집에 진입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성화는 부하 2명과 함께 해당 집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나머지 부하들로 하여금 農具를 휴대하고 田圃에서 배회하며 경계를 서게 하였다.³⁶⁾ 이는 자신들의 신분을 평범한 지역 주민으로 위장하여 일제의 탄압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위급 시 교전이나 퇴각을 좀 더 수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리고 이는 이 시기 의병들의 무력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었고, 이성화 역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성화는 일제로부터의 탄압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유사시 전략적 우위에 서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도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성화와 그 부하들의 출신지부터 주목해야 하는데, 이들은 대개 본인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서 활동하며 정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이 부대 재정비와 정보 수집의 거점이었던 주막의 활용이다. 이는 이성화 의진 참여자였던 朴仲學의 활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전북 淳昌郡 福興面 水岩리에 거주하며 주막을 운영하며 1908년 3월 이후 李成化를 비롯하여 申甫鉉·吳一奉 등 의병장들에게 일본토벌대의 행동을 사전에 고지하여 화를 피할 수 있게 하였다.³⁷⁾ 이들의 활약은 이성화가 지역에서 활동할 때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방안으로 다른 의진과의 연대 역시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미의병기 지역 의진들은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의진 간 합종연횡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 같은 경향은 이

36)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715號:暴徒ノ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37) 李斗璜, 1909, 『高秘收第1247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暴徒에 關한 編冊 全羅南北 慶尙南北 警務局 II』; 『朴仲學 判決文』, 1909년 10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성화 의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08년 음력 12월 하순경 全羅北道 淳昌郡 下置面 籠巖에서 있었던 의병장 간의 회합이다. 1909년 2월 21일 일제에 체포된 ‘賊徒’의 자백에 따르면 이때 文在化의 자택에 申保玄·李成化·盧贊文·李學士·鄭聖玄 등이 모였고, 이후 활동 방향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이 회합에서 논의된 주요한 사항은 음력 2월 20일 全羅南道 長城郡 白羊寺山에 집결한 뒤 全羅南道에서 대활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보가 있었는데, 첫째, 全羅南北 兩道の 賊徒 수령은 全海山으로 그 부하에 金汝回(中軍將)·李成化(先鋒軍將)·盧贊文(右翼軍將) 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申保玄의 부하에 安답사리(답사리란 傭人이라는 의미라고 함)라는 적장이 있다는 것이었다.³⁸⁾

위의 내용은 물론 신원이 불분명한 이의 자백에 근거한 것이긴 하나 그럼에도 이성화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가 자신의 활동지역에서 申保玄 등 여타 의병장들과의 연대를 논의하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점, 더 나아가 全海山の 휘하에서 ‘先鋒軍將’으로 활동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덧붙여 상기 정황에 대해서는 부분적이거나 다른 일제 보고 자료에서도 확인되기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1909년 3월 13일자 일제 보고에는 李成化가 申保玄·盧贊文 등과 기맥을 통한다는 내용이 있었고,³⁹⁾ 또 실제 1909년 4월 5일, 李成化와 申保玄은 연합의진을 구축하여 약 1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전북 淳昌郡 加布谷 북방에서 일본군경과 교전에 나서기도 하였다.⁴⁰⁾

한편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1909년 4월 5일자 일제 보고에 따르면, 李成化와 全海山の 연대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 泰仁郡 一邊面 杻村長 李子化가 증언하기를, 최근 李成化가 全海山에게 ‘精銳 銃器’를 수급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⁴¹⁾ 단, 이 증언의 신빙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全海山 의진이 1908년 8월 이후 쇠퇴하고 있었고, 이 증언이 나온 1909년 4월경에는 이미 세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이성화 의진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⁴²⁾ 하지만 그럼에도 李子化의 증언은 이 시기 이성화

38) 明石元二郎, 1909, 「憲機第506號:全北泰任分遣所長報」.

39)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283號:暴徒來襲ノ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40)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398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41) 李斗璜(全羅北道觀察使), 1909, 「高秘收第373號:暴徒ニ關スル件」, 『隆熙 3年 1月 暴徒에 관한 編冊 全羅北道 警務局』.

의진의 활동과 관련하여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의진 참여자

이성화 의진에 참여한 이들은 판결문과 일제의 보고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비중으로 보면 판결문이 가장 많지만, 그중 상당수는 보고 자료에서도 중복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이외 일부 소수에 한해서는 보고 자료에서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이성화 의진 참여자

번호	성명	연령	주소	직업	罪名	刑名·刑量
1	高成杓	29	전북 井邑郡 東面 德加里	미상	미상	미상
2	權金岩	22	전북 泰仁郡 古縣內面 院村里	농업	폭동	징역2년6월
3	金水萬	23	전북 泰仁郡 南村面 鑰村	농업	강도	징역10년
4	金永植	22	전북 古阜郡 畚內面 禮洞里	농업	강도	징역10년
5	金化春	32	전북 古阜郡 水金面 左六里	농업	강도	징역7년
6	金奉安	30	전북 泰仁郡 東山面 葛山里	농업	폭동	태100
7	金善玉	29	전남 長城郡 北上面 水城里	농업	강도	징역3년
8	金永植	22	전북 古阜郡 水田內面 禮洞	미상	미상	미상
9	金有奉	37	전북 古阜郡 雨日面 里門里	농업	폭동	징역1년
10	金子化	39	전북 泰仁郡 興天面 ○村里	농업	절도	징역15년
11	金致德	32	전북 井邑郡 北面 九陽谷	농업	폭동	징역2년
12	金化春	32	전북 古阜郡 水金面 左土里	미상	미상	미상
13	朴仲學	54	전북 淳昌郡 福興面 水岩里	주막업	知情·隱避	징역3년
14	申奉烈	26	전북 古阜郡 水金面 水金里	농업	강도	징역7년
15	柳公述	27	전북 淳昌郡 下置洞面 玉山里	농업	강도	징역5년
16	李京先	52	전북 扶安郡 下西面 九芝山里	무직	강도	징역5년
17	李基三	17	전북 古阜郡 雨日面 道贊里	농업	폭동	징역1년
18	李炳善	23	전북 古阜郡 伐未面 龍樓洞	농업	강도	징역7년
19	李順化	22	전북 井邑郡 北面 伏龍里	농업	폭동	징역3년
20	林奉汝	49	전북 古阜郡 聲浦面 新店里	釜商	폭동	징역1년6월
21	田德鎭	30	전북 泰仁郡 畚內面 道溪里	농업	강도	징역5년
22	鄭仁八	29	전북 井邑郡 東面 用岩里	농업	鬪毆共犯	징역2년
23	陳相九	22	전북 扶安郡 下西面 大浦里	농업	강도	징역7년

42) 『全垂鏞 判決文』, 1910년 7월 9일, 大丘控訴院.

번호	성명	연령	주소	직업	罪名	刑名·刑量
24	崔大形	36	전북 古阜郡 水金面 水金里	농업	강도	징역7년
25	崔明春	24	전북 古阜郡 水金面 三洞里	농업	폭동	징역1년
26	崔順甫	34	전북 古阜郡 皮内面 二門内里	농업	강도	징역5년
27	秋再葉	27	전북 淳昌郡 福興面 七笠里	농업	강도	징역5년
28	韓八福	19	전북 古阜郡 聲浦面 新店里	농업	강도	징역7년
29	許在弘	23	전북 古阜郡 雨日面 花野里	농업	폭동	징역2년
30	洪性西	24	전북 井邑郡 北面 伏龍里	농업	폭동	징역2년

* ‘연령’은 1909년 기준임.

* 高成杓(1)·金永植(8)·金化春(12)은 보고 자료에서 확인된 인물로, 직업·죄명·형명·형기를 알 수 없음.

자료에서 확인한 이성화 의진 참여자는 총 30명이다. 명단에 수록된 이들의 공통점은 일제에게 체포되어 그 구체적인 신상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 30명이었기 때문에 이성화 의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성화 의진의 규모는 일제 보고 의거 70명을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통해 이성화 의진 참여자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먼저 연령을 보자. 1909년 기준 최고령자는 54세의 朴仲學이었고, 최연소자는 17세의 李基三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9.5세로 거의 30세에 근접하고 있었는데, 의병의 활동 특성상 신체적 능력이 담보되어야 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주 지역은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는 金善玉을 제외하면 나머지 29인 모두가 전북 거주자였다. 좀 더 세분화하여 보면, 전북 고부 14명(46.6%), 부안 2명(6.6%), 순창 3명(10%), 정읍 5명(16.6%), 태인 5명(16.6%), 전남 장성 1명(3.3%)이었다. 이 같은 구성비는 이성화 의진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성화 자체가 고부 출신이었고, 또 가장 많은 활동을 벌인 곳도 역시 고부였다. 이는 고부 출신자가 가장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심을 얻기 수월하고, 지리에도 밝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은 확인되지 않는 3인을 제외한 27인 중 朴仲學(주막업)·李京先(무직)·林奉汝(釜商)를 제외한 모두가 농민이었다. 공업이 발달하기 전의 전근대 사회이고, 특히 전북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죄명은 ‘폭동’·‘강도’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군자금 모집 및 일본 순사 등과의 교전이 주를 이루는 의병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다만 朴仲學은 그 직업 특성상 다른 이들과 달리 ‘知情’ 및 ‘隱避’의 죄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주막을 운영하면서 일제의 탄압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하고, 이성화 의진을 포함한 의병들에게 숙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⁴³⁾

형량은 태100도를 받은 金奉安(6)을 제외하면, 나머지 확인되는 26인 모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이들 중 5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아 14명이 5년형 이상을 받았다. 특히 金水萬(10년)·金永植(10년)·金子化(15년) 등 3인은 무려 10년형 이상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의 활동을 보면 일제가 의병을 얼마나 가혹하게 처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은 화승총 등을 소지하고 민가에 들어가 군수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명을 살상하지 않았음에도 무려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정미의병기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이성화와 그의 의진에 참여한 이들의 항일투쟁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거의 다뤄진 바 없는 이성화 의진의 활약상을 1908~1909년에 걸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성화의 의진 운영과 해당 의진에 참여했던 부하들까지 같이 검토하고자 하였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화는 전북 고부군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거의 동기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활동 과정에서 줄곧 ‘의병’을 표방한 점을 볼 때 乙巳勒約 등을 기점으로 망국의 위기가 고조되고, 1907년 광무황제의 강제 퇴위 등을 겪으며 전국적으로 의병이 들고 일어나자 이에 부응하여 같이 활동에 나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이성화의 활동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1908년 7월 무렵 본격화하고 있었다. 이후 1909년 10월까지 투쟁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군수품 모집 활동과 이를 기반으로 일본 군경과의 교전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1909년 7월 이래 부하들이 지속적으로 체포되면서 의진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1909년 10월의 활동을 끝으로 더 이상의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사실상 의진을 해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끝까지 체포되거나 항복하지 않았으며, 1911년 7월경 순국한 것으로 보인다. 약 1년 반 정도 활약을 한 셈이다.

셋째, 이성화의 활동은 일부 교전 및 파괴 활동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군수

43) 『朴仲學 判決文』, 1909년 10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품 모집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간의 보급을 중심으로 투쟁해야 했던 당시 의진의 한계를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전 활동에 있어 동시기 활약했던 문태수 등과 비교하면 조금 더 고전한 측면이 있었다. 우선 해산 군인 등 전투에 숙련된 인원이 포진한 문태수의진 등과 달리 거의 농민으로만 구성되었던 게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문태수·김동신 등이 인근 덕유산과 지리산 등 산지를 근거로 하여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했던 것에 반해, 이성화는 평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이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성화의 활동 지역은 본인의 출신지였던 전북 고부를 중심으로 부안, 정읍, 순창, 태인, 금구, 김제, 만경, 담양 등 전북 서부와 일부 전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었고, 일부 자료에서 나타나는 대로 지도 등 전남 남부의 섬에서도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성화의 부하들 역시 고부를 중심으로 전북 서부지역 출신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이성화 의진은 전북지역 의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이성화의 활약상을 살펴보았다. 정미의병기 호남의병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함에 있어 끝까지 가장 큰 저항을 했던, 경술국치 이전 대일항쟁을 대표하는 주축이었다. 이성화는 그 호남의병의 일원으로서 전라북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1908년부터 1909년까지 맹활약하였고, 끝내 체포되거나 항복하지 않고 최후를 맞이한 진정한 의병장 중 한 명이었다. 본고는 이성화의 활약상을 본격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그의 활약상을 발굴해내고자 노력했고, 지금까지 전남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전북지역 의병장들의 활약상을 발굴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단, 아직도 검토되지 못한 여러 의병들의 활약상이 있는 형편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원자료

『新韓民報』

『暴徒에 關한 編冊』

『判決文』

2.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1999a, 『統監府文書』 6.

국사편찬위원회, 1999b, 『統監府文書』 9.

덕수이씨대중회, 2001, 『增補 第九刊 德水李氏世譜』 禮編 下.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全北鄉土文化研究會, 1992, 『全北義兵史』 下卷.

3. 논문

구원희, 2014, 「을미의병기 호좌의진湖左義陳과 영남 의진의 연대와 태봉胎峯 전투」, 『국학연구』 24, 한국국학진흥원, 311-348쪽.

이용철, 2022a, 「대한제국기 趙雲植의 의병투쟁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0(2),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84-302쪽.

이용철, 2022b, 「의병장 문태수의 생애와 항일투쟁」, 『군사사연구총서』 10, 군사편찬연구소.

이용철, 2023, 「의병장 문태수의 의진 운영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洪英基, 1989, 「舊韓末 金東臣 義兵에 대한 一考察」, 『韓國學報』 15-3, 일지사.

洪英基, 1993, 「大韓帝國時代 湖南義兵 연구」,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홍영기, 2015, 「한말 후기의병의 장기항전 전략과 전술」, 『역사학연구』 57, 호남사학회, 135-158쪽.

홍영기, 2016, 「한말 호남의병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64, 호남사학회, 107-132쪽.

<Abstract>

A Study on the Anti-Japanese Struggle of Lee Seong-hwa, the Leader of the Righteous Army in Jeollabuk-do during the Period of Jeongmi Righteous Army

Lee Yong-cheol*

This study examines the anti-Japanese struggle of Lee Seong-hwa, the commander of the righteous army. Lee Seong-hwa is a native of Gobu-gun, Jeollabuk-do, and appears to have jumped into the righteous army when the country faces a crisis due to 乙巳勒約 and forced abdication of Emperor Gwangmu. He began his activities in earnest from July 1908, and then focused on recruiting munition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struggle until October 1909. And continued to battle the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In addition, during this process, he sometimes confronted Japanese imperialism in solidarity with other righteous army generals such as Shin Bo-hyeon.

Lee Seong-hwa's active areas were concentrated in western Jeollabuk-do and some northern Jeollanam-do areas, including Buan, Jeongeup, Sunchang, Taein, Geungu, Gimje, Mangyeong, and Damyang, focusing on Gobu, Jeollabuk-do. This is deeply related to the fact that Lee Seong-hwa was from Gobu itself, and most of his subordinates were from western Jeollabuk-do, centering on Gobu.

However, Lee Seong-hwa struggled more in battle with the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than Kim Dong-shin and Moon Tae-soo, who were active during the same period. This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his army is almost entirely made up of peasants. It also seems to be related to the fact that despite the inferiority of the weapon, it was mainly active on flat land.

Seong-hwa was a righteous army commander in Honam region and was active mainly in the western part of Jeollabuk-do, and he was a righteous army commander who did not get arrested or surrendered. However, since there were no individual studies on him, we tried to identify his activities that have not been studied so far through this study.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contribute to

* Chungcheo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discovering the activities of the heads of righteous army in Jeollabuk-do, which are relatively less known than in Jeollanam-do.

Key Words : Lee Seong-hwa, Righteous Army, Independence movement, Jeongmi Righteous Army, Honam region

